

18. 나마하계관: 해설, 산신설

오랜 세월 오가 사람들은 신잔과 혼잔을 성스러운 땅으로 숭배하였고 그곳에는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마하계는 이러한 신들의 사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나마하계가 매년 연말에 ‘산에서 내려온다’는 설정도 나마하계와 이 신성한 산과의 연결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잔을 포함한 오가 주변의 몇몇 마을에서는 나마하계가 쓰는 탈이 빨간색인데 이것은 나마하계가 ‘아카가미’의 사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오가의 아카가미 신사 등의 지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카가미란 ‘붉은 신’을 뜻합니다.